



#### 마카오 예술축제 개최

제1회 마카오 예술축제가 18일 개최된다. 마카오정부관광청은 "지난해 행사에 전만 중단된 데 이어 올해에도 연례적 행위로 세계 각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심할까지만 하려고 마련하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카오 예술축제를 올해는 열기로 했다"고 밝혔다. 축제는 중국어 4대 전설 '백사전을 모티브로 한 음악 퍼포먼스로 시작되며, 중국 전설 '백사전'과 고전 소설 '홍루몽', 미국 현대 극작가 나이팅엘 엑스의 연극인 '리빙(Living Legend)' 등이 다량한 곡으로 제작되어 상연된다.



#### 김포 대구 김해에서도 무착륙 관광여행 한다

국토교통부는 무착륙 관광여행을 김포 대구 김해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. LCC(저가항공사)를 중심으로 한 국제항공사의 자회사들이 국토교통부에 무착륙 관광여행을 지방공항으로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결실을 본 것이다. 정부는 지금까지 무착륙 관광여행이 못한 항공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만 허락 3회로 제한해왔다. 이 때문에 관광여행 특성상 수요가 몰리면서 항공사별로 주말 출퇴근을 저지하기 위한 결정이 지양됐다.



#### 타지, 관광업 동시저 대상 혁신 집중 시작

타지스탄관광부는 타지 내 관광업계 동시저자들을 상대로 신용 조려(리피타스) 플랫폼(2021년)에 혁신 집중을 시작했다. 타지스탄관광부는 올해를 관광 사업 이전 혁신 집중 연호로 목표로 지정하면서, 타지스탄(중계업) 등 4개 분야를 집중시, 교역, 숙박 시설 근무자를 비롯해 여행사 직원, 여행 전문 기업이 등 관광업계 동시저들을 우선 집중하고 있다. 타지스탄(중계업) 관계자는 "타지는 2021년 4월 1일인 관광 전문 프로그래밍(Safe Tourism Program)을 시작한 이래 일정한 보안 지침을 적용하고,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"고 말했다.